

얼굴을 붉힌 사건

본문 요2:1-12

시작: 21장.

끝찬미: 154장.

+

Sermon idea: 사흘은 안식일 중심이다. 혼인잔치. 포도주의 의미...
(그리스도의 보혈). 인생의 곤란함. (포도주가 떨어짐.) 해결은 바로
옆에 예수님.

+

요한 복음 2장.

사흘되던 날? – 언제부터 사흘이 되는 날인가?

요1:43 이튿날.

35절. 이튿날.

29절. 이튿날.

+

예수의 침례. 29절의 이튿날은 예수 침례의 장면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광야로 가심을 알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기사가 없다.

그리고, 갑자기 요한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온다.

그것도 사흘째 되는 날...

유대인의 날짜개념은 ... 안식일 중심이다.

안식일 중심으로 바로 전 날은, 예비일. 오늘의 금요일에 해당.

안식일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사흘째 되는 날이 된다.

조부들의 신앙은 일요일, 월요일이 아니라... 첫째날, 둘째날...

(제1일, 제2일 ...그렇게 계산할 때가 있었다.)

//안식일이 너무 바쁜 날이 되지 않기를... 벌써 안식일이야^^

~

예수가 곁에 있어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그 문제해결중심엔
반드시 예수가 있다!

= 인생의 길. 출애굽과 광야생활/ 그리고 입 가나안.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요약해서 말해준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
지금은 다 광야 동창생들이다. 한시라도 쉴 틈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여전히 산재하여 있다.
단,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항시 있지만, 해결될 것이다.
반드시 입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를 통과하여야 한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는 있다.

(아브라함도 직접 지시하신 땅으로 갔지만,
여전히 기근과 무자함으로 시달렸다.)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당혹한 상황을 본 적이 있는가?
이미지 구겼다!

4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십자가의 때)를 의미한다. 포도주의 상징아닌가?
+

우리의 문제해결능력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다.
(5절을 주목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순종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삼상15:22]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느9:34]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역사는 계속반복되고... 이스라엘이 걸어난 길을 유심히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

+

6절.7절.

끝까지 순종하는 자.

1.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
2.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돌이켜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얼마나 상심하였나?

(해결해보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11절.)

+포도주인가 포도즙인가?: 명백한 이유 from Ellen G. White

The wine which Christ provided for the feast, and that which He gave to the disciples as a symbol of His own blood, was the pure juice of the grape. (DA, 149)

그리스도께서 연회에 제공하신 그 포도주는 그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은 순수한 포도주스였다.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포도주 맛을 제대로 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찬의 포도주라 함은, 여태껏 맛보지 못한 극상의 포도즙이 나온 것이다. 비교가 되지 않는.

포도주 (오이노스) : 포도나무 산물. 포도주도 될 수 있고, 포도즙도 될 수 있다.

(우리 생애에 예수를 만날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 사건의 신학적 의미는?

시험문제: 바이런.

[바이런의 일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한 젊은 학생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그 날의 시험 문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는 것.

다른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열심히 긴 논술문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
그 학생은 혼자서 두 시간이 넘도록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했다.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 가고 있었지만
이 학생은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시험 감독이 학생에게로 다가와,
답안지를 걷기 전에 어서 무슨 말인가를 쓰라고 재촉했다.

학생은 마침내 연필을 들어
답안지에 다음과 같은 한 줄의 문장을 썼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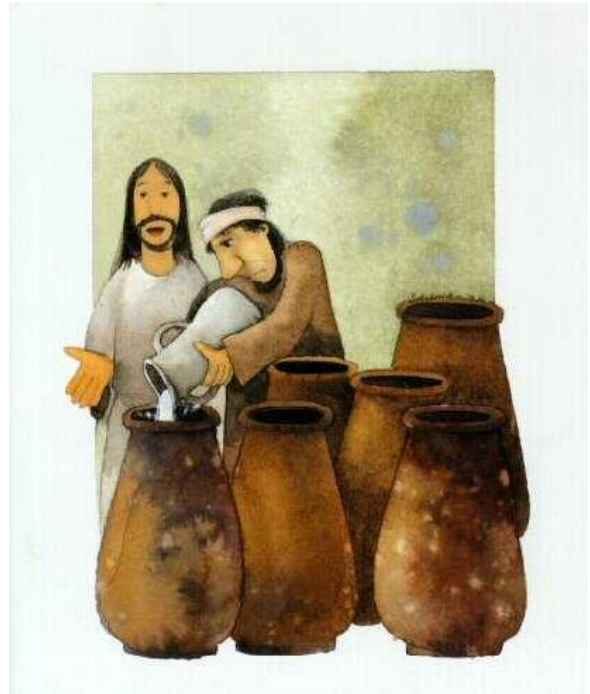
+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멋진,맛난
인생이 되기도 한다.

실지로 그 반대의 경험도 있을 것이다.
술에 젖어서 살던 사람도,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면 맹물인생이 된다.
술의 독에서... 술독에서 ... 진정 생수가 되는 삶.
이것은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또 다른 기적의 현장이다.

+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출 15: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15:24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15: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
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으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예수 중심의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며,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